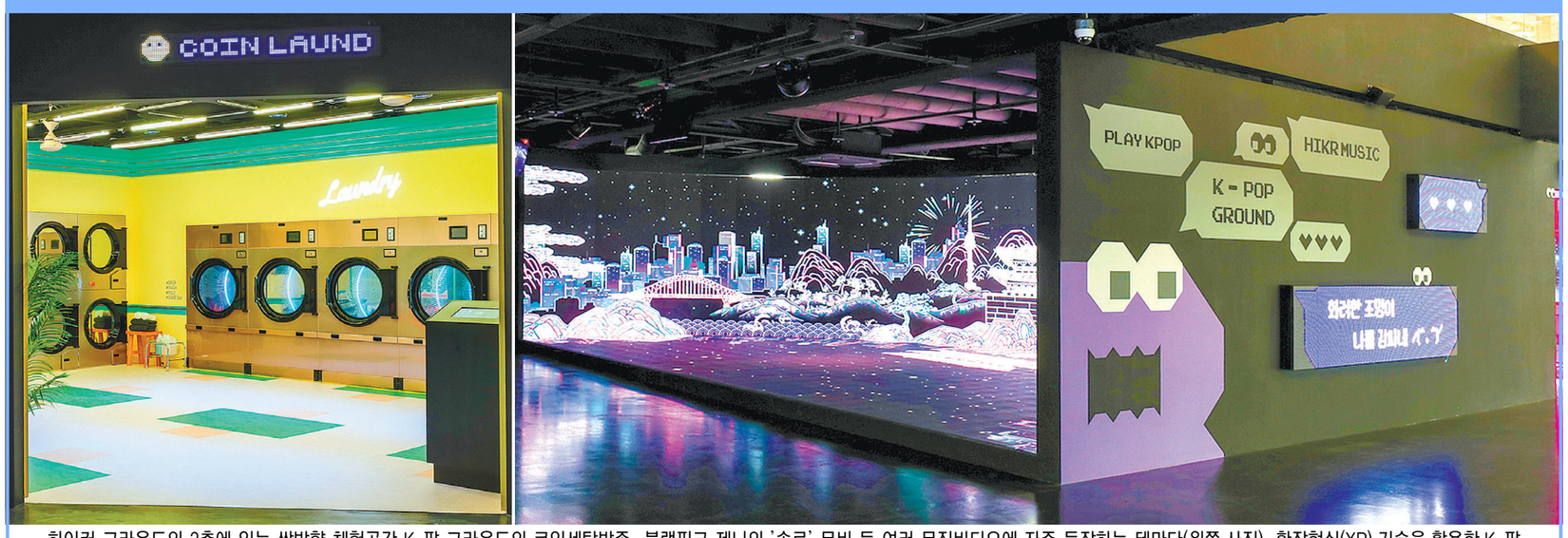


하이커 그라운드의 2층에 있는 쌍방향 체험공간 K-팝 그라운드의 코인세탁방존. 블랙핑크 제니의 '솔로' 뮤비 등 여러 뮤직비디오에 자주 등장하는 테마다(왼쪽 사진).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한 K-팝 그라운드의 마이 스테이지. 1000여 종의 XR 배경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취향에 맞춰 영상효과를 가미해 나만의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 있다.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K팝 뮤비 주인공 돼보고 서울 풍광에 반하고

입구서부터 웅장한 대형 미디어아트 감상
K팝 뮤비 공간서 인생샷·나만의 뮤비 촬영
한류 스타들 이미지 활용한 특별전도 한창
탁 트인 야외 테라스서 도심 야경 등 만끽

"한국여행, 여기서 미리 즐기고 느껴볼래."

좋아하는 K-팝 뮤직비디오 주인공이 되어 보고, 야외 테라스서 서울 풍광도 즐기고…. 최근 서울 청계천에 문을 연 '하이커 그라운드'(HiKR Ground)의 첫 인상은 '꽤 재미있는 놀이터'이다. '하이커 그라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여행객과 인트라바운드(내국인 국내여행) 고객을 겨냥해 새롭게 문을 연 한국관광 테마관이다.

청계천변에 지상 5층 규모로 자리잡은 하이커 그라운드는 전체 디자인부터 주요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최근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를 겨냥하고 있다.

● "어, 여기는 제니 뮤비 속 그곳"

조금 색다른 명칭 '하이커 그라운드'는 3가지 의미의 조합이다. 세계 관광객에게 한국(KR)이 건네는 반가운 인사(Hi)와 여행자들의 놀이터(Playground)를 합친 것이라고 한다. 의도는 이해가 되는데 한국관광 이미지를 직관적이고 감성적으로 느끼게 하는 이름이라기엔 아직은 꽤 어색하다.

하이커 그라운드는 기존 한국관광 홍보관인 K-스타일허브를 지난해 6월부터 1년여에 걸쳐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한국여행 좋아요'라는 식의 주입식 메시지 대신 방문객이 테마관 여기저기를 즐기고 체험하는 동안 자연스레 한국여행의 매력에 젖어들도록 노력했다.

대표적인 곳이 2층의 'K-팝 그라운드'. 이곳은 K-팝 뮤직비디오에 자주 등장하는 4가지 테마(지하철, 컬러룸, 코인세탁방, 우주선)와 XR(확장현실)스튜디오 '마이 스테이션'으로 이루어졌다. K-팝을 좋아하고 뮤직비디오를 즐긴다면 들어서는 순간 "어, 여기는 에스파의 '블랙 맘바' 뮤비 속 지하철", "제니 '솔로'에 나오는 코인세탁방 닮았네"라며 반기는 곳이다. 이곳에선 조명을 선택할 수 있고, 음악도 좋아하는 것으로 선택해 SNS용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다. K-팝 팬들의 새로운 '성지순례' 코스로 기대가 되는 공간이다.



3층 하이커 아트 뮤지엄에서 전시중인 권오상 작가의 직품들. 국내 대표 아티스트와 한류, 지역축제를 매칭하여 재해석하는 국내 최초 한류+축제테마 미술관이다.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국내 유일의 XR-스튜디오인 '마이 스테이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방문객이 XR 기술로 구현된 100여 종의 가상배경 중 하나를 선택해 특수효과를 직접 연출하면서 나만의 뮤직비디오를 찍을 수 있다.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기보다 자신 취향대로 꾸미거나, 변형하는 것을 즐기는 MZ세대 성향을 스마트 기술로 맞추었다.

● 차세대 한류 콘텐츠, 아트 작품도 소개

차세대 한류 콘텐츠로 기대를 모으는 예술 분야의 다양한 작품들도 있다. 하이커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입구인 1층의 대형 미디어월 '하이커 월'에서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작품 '신(新) 도시산수도'를 공개하고 잇다. 목포 부산 전주 안동 강릉 등 5대 관광거점도시를 테마로 한 영상작품이다.

3층 '하이커 아트 뮤지엄'에서는 국내 아티스트들의 특별기획전을 진행한다. 첫 협업 아티스트는 사진조각으로 유명한 권오상 작가다. 5대 지역축제를 작가의 시선으로 담은 작품부터 유아인, 지드래곤 등 한류 스타의 이미지를 활용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같은 층의 '드라마틱 트립'에서는 OTT 플랫폼을 통해 알려진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 한류 영상콘텐츠 속 국내 관광지를 소개한다.

5층에는 야외 테라스를 갖춘 '하이커 라운지'가 있다. 야외 테라스에서 청계천이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공간인데 서울 도심 풍광을 즐길 수 있다. 해질녘이나 서울 야경을 찍으며 한국여행의 추억을 담는 포토스팟으로도 매력적이다.

하이커 그라운드는 꽤 과감한 시도를 했고, 그만큼 참신한 콘텐츠로 많아 돌아보는 재미가 있다. 하지만 일부는 방문객에게 어떤 점을 알리고, 어떤 느낌을 전해주려는지 의도가 애매한 곳도 있었다. 4층 국내관광 멀티체험존 '하이커 케이브'와 '축제 체험관'의 경우 지역축제나 웰니스 관광지 등을 오감으로 느끼는 공간이라고 소개했지만, 거창한 의도에 비해 음향, 시각, 향 등의 오감 체험이 선명하게 와 닿지 않아 아쉬움을 주었다.

oldfield@donga.com

'비짓서울' 소셜아이어워드 3년 연속 4관왕

서울관광재단의 서울관광 SNS 계정인 비짓서울(Visit Seoul)이 '2022 소셜아이어워드'에서 3년 연속 4관왕을 차지했다. 비짓서울은 공공 혁신대상(유튜브), 공공서비스 대상(인스타그램), 공공기관 최우수상(페이스북), 공공 소셜미디어분야 대상(틱톡) 등 4개 분야를 수상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단 한 채널에만 수여하는 혁신대상을 수상했다. 비짓서울TV는 문화, 계절, 음식 등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통해 서울 여행에 대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롯데호텔, 셰퍼드 페어리 협업 카드홀더 선봬

롯데호텔이 세계적인 아티스트 셰퍼드 페어리와 협업한 키 카드 홀더를 선보인다. 셰퍼드 페어리는 2008년 버락 오바마의 초상화 포스터 '희망'(HOPE) 등의 작업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 OBEY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셰퍼드 페어리 키 카드 홀더는 시그니엘 서울을 비롯해 롯데호텔 서울과 월드, L7. 롯데시티호텔 등 국내 15개 체인 호텔에서 연말까지 만날 수 있다. 키 카드 홀더를 지참한 투숙객에게 내년 6월 30일까지 롯데뮤지엄의 전시를 동반 1인 포함 30% 할인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울창한 죽림에서 고즈넉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대구수목원.

팔공산부터 달성습지까지 '생태관광 명소' 널린 대구

대구광역시와 대구관광재단은 지역 생태관광의 매력을 담은 '내추럴 대구'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최근 시범운영을 마쳤다. '내추럴 대구' 여행이란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생태관광자원을 접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체험여행 프로그램이다.

대구는 도시 인근의 다양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생태관광도 즐길 수 있다. 대구를 대표하는 팔공산이 있고, 봄철 진달래로 유명한 비슬산도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다. 낙동강과 금호강 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한 달성습지 등 산과 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생태관광 명소들이 대구 주위에 있다.

팔공산, 낙동강, 비슬산 등 대구의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해 개발한 '내추럴 대구' 프로그램은 그린로드, 에코로드, 리버로드, 웰로드 등 4개 코스로 이루어졌다. 그린로드는 동구 생태관광 코스인 봉무공원을 비롯해 나비 생태원, 불로동고분군, 도동 측백나무숲, 옻골 마을을 둘러보는 여정이다. 에코로드는 팔공산 생태관광코스인 팔공산 자생식물원, 동화사 등을 거친다. 리버로드는 비슬산, 사문진 주막촌, 달성습지 등을 둘러보는 낙동강 생태관광코스다, 마지막으로 웰로드는 달성군 생태관광코스로 대구수목원과 송해공원, 비슬산을 방문해 반딧불이 전기차를 탑승한다.

대구관광재단은 6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에 투어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대구광역시와 대구관광재단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부터 내추럴 대구 여행 상품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네파, 몽골 취약층에 1억 상당 방한의류 기부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기후 위기에 따른 혹한(영하 40도 이하)으로 매년 어려움을 겪는 몽골 주민들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 단체 푸른아시아를 통해 약 1억 원 상당의 방한의류를 기부했다.

방한의류는 몽골 기후위기 피해지역 주민들과 기후난민들에게 전달된다. 기후난민이란 급격하게 진행된 기후 변화로 생활환경에 위협을 받아 살던 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이주민을 뜻한다.

네파 관계자는 "매년 혹한의 어려움을 겪는 몽골의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그린마인드 수익금에 네파의 마음을 조금 더 보태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브랜드로서 환경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29일 (금) 음력: 7월 1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땅 속의 씨가 싹이 터서 따뜻한 태양의 열로 잘 자라 이윽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어린 싹은 봄이란 계절과 강렬한 생명력과 풍부한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견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만사가 형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너무나 소극적이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주변인을 믿지마라.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은 좋아보여도 내면은 진실성이 없으며 현재 무슨 일이나 분명치 않아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이다. 거래상대가 이쪽을 의심하게 되니 잘 설득시킴이 중요하다.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조급히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성실함이 있어야 크게 길하다. 허물이 없고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져야 한다.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을, 주위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관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관재수를 조심하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된다.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서 협력을 구하라.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청색 길방:동
사방이 위험으로 막혀있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운이기도 하다.	대체로 좋은 위치에 있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 수 가 많다. 따라서 애매한 전망으로 일을 시작하다보면 반드시 중도에 좌절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앞날은 밝아질 것이다. 오늘은 자유분방한 날이다.	민둥산에 심어진 묘목들이 점차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온 산을 초록으로 덮는 것처럼 점진적 발전을 할 때이다. 서서히 나아가는 것이다. 급격한 성장은 바랄 수 없으나 착실하게 순리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신중하고 묻기를 거듭해야 한다.	운세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나쁜 의미로 사기를 당하거나 재난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진행중인 일에 골치가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잘 풀리지 않으며 교재비를 많이 쓰게 된다. 머리를 쓰라. 우연히 뭔가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지출이 많을 때이니 되도록이면 저축에 힘써라. 너무 밀고 나아가면 상대가 주춤하고 멈춘다. 상대가 먼저 움직일 때를 기다리며 생각하라.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길 기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바라지 말라.

오늘의 날씨

29일(금)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
서울	20/60	26	34
인천	20/60	26	32
춘천	30/60	24	34
강릉	20/0	24	31
대전	0/60	25	35
전주	0/60	25	34
광주	0/10	25	34
대구	20/20	25	34
부산	0/0	25	31
창원	0/0	24	33
제주	10/20	27	33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77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